

한국 피겨 간판 이해인·차준환

'팀 트로피'에서 메달 노린다

13일부터 일본 도쿄서
한국 등 6개국 경쟁

한국 피겨가 사상 처음으로 나서는 국제단체전 대회인 '팀 트로피'에서 메달을 노린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은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팀 트로피에 참가한다.

남자 싱글에는 차준환 이시형(이상 고려대), 여자 싱글에는 이해인(세화여고), 김예림(단국대), 페어는 조혜진-스티븐 애드록, 아이스댄스는 임해나-취안예가 출전한다.

2009년 시작된 팀 트로피는 격년제로 매년 일본에서 열린다.

ISU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피겨 단체전으로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낸 6개국이 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첫 출전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전에 나선 적은 있지만 팀 트로피는 처음이다.

남녀 싱글에선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단체 종목인 페어와 아이스댄스에서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어와 아이스댄스에 외국 국적 선수가 합류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페어에 나서는 조혜진은 캐나다 출신의 이중국적 선수다. 애드록은 캐나다 국적이다.



한국 피겨 대표팀 차준환(왼쪽부터), 이해인, 김예림, 이시형이 11일 국제 단체전 대회 '팀 트로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둘은 2022년 팀을 결성해 이번이 첫 국제대회 참가다.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임해나는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이며, 취안예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임해나-취안예는 지난달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

지난달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싱글 동반 은메달을 목에 건 차준환과 이해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차준환은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개인 최고점인 296.08점으로 준우승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 처음이다.

이해인도 같은 대회 여자 싱글에서 개인 최고점인 220.94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단체전인 팀 트로피는 종목별로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전 선수가 고른 성적을 내야 종합

순위에서 유리하다.

한국과 함께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이 경쟁한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대회에선 러시아(125점)가 우승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출전이 금지됐다.

러시아가 빠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우승을 다툰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3위를 노린다.

/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지난 8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 호브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득점왕 압박감 컸다… 이겨낼 것”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0골 달성 관련

“최고 수준 미치지 못해… 변명하고 싶지 않아

가장 중요한건 승점 3점…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골을 달성한 손흥민(31·토트넘)이 지난 시즌 득점왕의 압박감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이브닝스탠다드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환상적이었다. 득점왕에 오른 건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내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모두가 내게 ‘쏘니가 득점왕에 올랐더니 다른 활약을 기대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압박도 컸다’고 덧붙혔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8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시즌 득점력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전반전은 단 3골에 그쳤고, 최근 득점력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7골이다.

손흥민은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변명할 수 없었다”며 “스스로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걸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뉴시스

그러면서 “나는 압박감을 좋아하는 완벽한 선수가 아니다. 아직 발전할 수 있다”며 “마지막 8경기가 나와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리그 7호골이자 통산 100호골을 터트렸다.

역대 EPL 34번째이자,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손흥민은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고 싶고,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며 “득점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소속팀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승점 53)다. 3위 뉴캐슬,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승점 56)와는 승점 3점 차다.

손흥민은 “EPL 100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점 3점을 얻는 것”이라며 “브라이튼전 승리는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짜로 승점 3점을 바라선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최지만, MLB 시즌 첫 홈런

피츠버그 이적 후 이뤄내… 시즌 타율 0.087

피츠버그 최지만(32)이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최지만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안타 하나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0-4로 끌려가던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상대 선발 좌완 프랭크 발데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가운데로 들어온 7구째

94m(약 130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다. 타구는 그대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로 연결됐다.

최지만이 시즌 7번째 경기에서 때려낸 첫 홈런이다.

지난해 11월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최지만은 이적 첫 시즌인 올해 출발이 더뎠다.

이날 경기 전까지 6경기에서 타율 0.058(19타수 1안타)에 그치는 등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첫 타석에서 왼손 투수를 상대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최지만(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 2회 말 1점 홈런을 친 후 홈베이스를 지나고 있다.

위기를 바꿨다.

아쉽게 이날 경기에선 더 이상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5회 무사 2루에서 다시 마주선 발데스에 삼진을 당한 최지만은 6회 1사 1루에서는 2루수 병살타를 쳤다. 1볼-2스트라이크에서 받아친 발데스의 5구째 심커가 2루수에 잡혔다.

9회 1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는 세스 마르티네즈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087(23타수 2안타)가 됐다.

피츠버그는 휴스턴에 2-8로 졌다.

피츠버그 선발 로안시 콘트라라스가 3이닝 9피안타 4볼넷 3탈삼진 7실점으로 무너지며 경기를 합격해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